

## Session 09 첫째 계명을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 (마 25장) (Practical Ways to Pursue the First Commandment)

### I. 도입

- A. 모든 하나님의 명령들은 이 부분들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분의 초자연적인 도우심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구하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대한 의도적인 기경이 없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그분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을 말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성 안에 그분을 향한 사랑을 일깨우시는 데에는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다.

*5 ...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롬 5:5)*

- B. 신실한 성도들이 첫째 계명을 추구하는 데에서 벗어나는 일반적인 이유는 실패 이후에 찾아오는 정죄감이나, 시간을 잘못 사용하여 성령께서 사랑으로 부어주시는 능력을 입지 못하거나, 과도한 이상적인 생각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무시하거나,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마음을 정기적으로 새롭게 하는 것을 간과하는 경우 등이다.
- C. 일반적인 실수는, 우리가 기도에 투자하는 시간을 “첫째 계명의 시간”으로 보고,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둘째 계명의 시간”으로 간주해서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간의 긴장감을 유발하는 경우이다. 예수님의 발 앞에 있는 시간은 우리가 두 계명 모두를 성취해나갈 수 있도록 힘을 얻는 시간이다. 우리는 사랑과 감사와 신뢰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첫째 계명 가운데 행할 수 있으며, 기도실 밖에 있을 때에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 걸어갈 능력을 얻는 자리로 지속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 D. “기름”을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은 겸손의 고백으로써, 우리가 사랑 가운데 명료하며, 지속적으로,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걸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기름을 사는 것은 두 계명 가운데 더욱 풍성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연료를 얻는 일과 같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와 함께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음을 증거하셨다(요 15:4-5). 우리는 사람들과 활발하게 지낼 수는 있지만, 온전하게 사랑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는 화가 나며, 실족하고, 우리의 섬김으로 인해 자만하게 된다.

### II. 예수님을 사랑해나가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

- A. **결정** :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확고하게 결정해야 한다. 그분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마음을 다한 순종을 드리기로 결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며, 하나님 안에 깊이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할 것에 대해 정기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의도적으로 새롭게 해야 한다.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 91:14)

1. 우리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해서 이를 선택해줄 수는 없다. 이것이 당신 자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란다, “나도 이를 선택하리라!”

42 ...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눅 10:42)

2. 다윗과 요한은 예수님의 심장에 기대서, 그분을 사랑하며 그분 곁에 있기로 결정했다.

1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KJV 흥정역 :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시 18:1)

20 ...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 문던 자더라 (요 21:20)

- B. **계시** :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계시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계기는 오직 하나 뿐인데, 그분이 전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될 때이다. 그분은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 (요일 4:19)

1.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묵상함으로 이에 대한 계시를 얻는다. 우리는 자신을 그분의 말씀으로 먹임으로 그분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게 된다.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 (히 4:12)

2. 우리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볼 수 있다.

1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 (요일 3:1)

- C. **개인적인 간구** :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과 계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한다.

9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 1:9)

18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표준 새번역 :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엡 3:18)

- D. **고백** : “예수님, 저는 당신의 사랑받는 자, 당신의 총애를 받는 자입니다. 저는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입니다. 당신이 저를 기뻐하심을 압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향해 가지고 계신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당신이 저를 향해 가지고 계신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께 속하였고, 당신은 제게 속하였습니다.” 우리는

## Session 09 첫째 계명을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 (마 25장)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 그러므로 나는 성공한 자이다.”

7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 (요 21:7)

19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다윗)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시 18:19)

- E. **교제** :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많은 부분을 섬기고 나눌 때에 받으며, 이를 다른 이들로부터 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기도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온 몸이 함께 움직일 때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유업과 치유의 일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주며 부어주는 다른 이들의 손에 있기도 하다.

7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귄다 ... (요일 1:7)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 (약 5:16)

## III. 예수님을 사랑하기로 마음을 결정함

- A.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갈 것에 대한 지속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로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노력과 집중이 필요하다.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갈 때에 성장해 나간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 이를 더욱 추구해나가야 한다.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삼 2)

- B. 예수님께 자신을 진실로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묻곤 한다, “제가 하나님께 더욱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힘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최소한만을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 사단의 우선순위는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전심으로 드리는 사랑과 헌신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3 뱀(사단)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후 11:3)

- C. 수 십 년 동안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급진적인 삶의 정의이다. 우리가 단지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뭔가 특별한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삶이 급진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다윗은 수 십 년 동안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지속해나갔다. 그는 그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추구를 계속해나갔다.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시 27:4)

- D. 다니엘은 그의 기도의 삶을 수 십 년 동안 열정적으로 이어나갔다(약 16살부터 82살까지).

10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BC 605-539, 또는 66년 동안)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단 6:10)

- E. 우리는 미약한 시작을 알아서 안 된다(속 4:10).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일으키시는 작은 움직임들을 가치 있게 여겨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마음의 씨앗으로부터 출발해서 천천히 자라나지만, 확실히 자란다. 우리는 이것이 자라나가는 과정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

26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27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막 4:26-27)

#### IV. 친밀함의 기름부음을 기경함 : 신랑이신 하나님을 경험함

- A. 마태복음 24-25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대 환란 가운데 승리 가운데 걸어가기 위해 준비되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마 24:29-31). 마지막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은 깨어있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경해나가는 것이었다(마 24:36,42-44,50; 25:13; 막 13:33-38; 눅 21:36; 계 3:3; 16:15).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 24:42)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

- B. 예수님께서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를 가르치셨다.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마 25:1-2)

- C. 처녀들 :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결한 처녀와 같다(고후 5:17).

2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 (고후 11:2)

- D. 등 : 처녀들 각자는 등을 들고 있었고, 이는 사역을 말한다(마 5:15-16; 계 1:20; 2:5).

- E. 신랑 : 여기서의 모든 사역들은 신랑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있었다. 이 사역들은 신랑이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 그분을 경험한 사역들이다.

- F. 그 때에 : “그 때”는 언제를 말하는가? 여기서의 “그 때”는 바로 앞 마태복음 24장에서 강조된 마지막 때를 말한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과 같은 때이다.

- G. “기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말하며, 하나님 안에서의 은밀한 삶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말한다. 성령님의

## Session 09 첫째 계명을 추구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들 (마 25장)

기름은 우리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만지신다. 이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는 우리가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갈망을 경험하게 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확대시켜준다. 이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밝혀주며, 이를 향한 열심을 우리에게 부여준다.

## V. 지혜로운 다섯 처녀들 : 기름을 취함

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 신량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6 밤 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량이라도 맞으러 나오라 하매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마 25:2-9)

- A. 미련한 처녀들은 등(사역)을 가지고는 갔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기름을 먼저 얻기보다 사역을 자신의 첫 번째 우선순위로 추구했다.
- B. 지혜로운 사역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갔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사역을 확장하고 조직해 나가는 것보다 기름을 얻는 것을 첫 번째 우선순위로 추구했다.
- C. 우리는 일상 속에서 기름을 기경해나가야 한다.

5 신량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마 25:5-7)

- D. 그들은 모두 잠들었고, 모두 등을 준비했다. 이 비유에서 잠들었다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는 이들이 삶의 일상을 살고 있었음을 말한다. 우리는 삶의 가혹한 시간에서도, 혹은 일상적이며 평범한 시간 가운데도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유지시켜 나가야 한다.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 모두는 잠들었으며, 삶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겪고 있다(마 25:5; 막 4:27).
- E.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이 기름을 등한시 했던 실수를 인식했다(마 25:8-9). 지혜로운 처녀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고, 자신들이 영적으로 지내온 시간들과 영적인 예비됨은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 F.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기름을 사야”하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 자신을 두기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르며 우리 자신을 투자해나가야 한다. 기름을 얻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먹이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두게 된다. 이 행위는 하나님의 호감을 사기 위한 것이 아니다.(IHOP.org의 “How to feed on God's Word” 노트 참조)

39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경험함) (눅 10:39)

G. 예수님께서서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으며, 신랑이신 그분과의 친밀함을 기경해 나가기 위해 마음을 열 것을 말씀하셨다.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 25:13)*

H. 주께서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나는 과정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우리 마음이 그분을 사랑하기 위해 다다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움직인다. 우리가 멈추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한 자이다<sup>1)</sup>.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우리 자신의 실패에서 찾지 않으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우리 영혼의 부르짖음에서 찾아야 한다(고후 5:12).

---

1) If we do not quit, then we win